

코퍼스 기반 한·중 연어 대조 분석 및 활용

--‘떡다’와 ‘吃’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한영균 두도

목 차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2 연구대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연어에 대한 기본적 논의

2.1.1 연어의 개념과 범위

2.1.2 연어의 유형

2.2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

3 한국어 ‘떡다’의 연어와 중국어 ‘吃’의 연어 대응 양상

3.1 ‘떡다’와 ‘吃’ 한국어 중국어 사전 뜻풀이

3.1.1 ‘떡다’의 사전 뜻풀이

3.1.2 ‘吃’의 사전 뜻풀이

3.1.3 한·중 사전에서 나온 뜻풀이 비교

3.2 ‘떡다’와 ‘吃’ 연어 추출

3.2.1 한국어 “떡다”의 연어 추출

3.2.2 중국어 “吃”의 연어 추출

3.2.3 연어 추출 결과

3.3 대응 관계 연어

3.4 비 대응 관계 연어

3.4.1 한국어 “떡다”의 의미 중 중국어 “吃”에는 없는 의미

3.4.2 중국어 “吃”의 의미 중 한국어 “떡다”에는 없는 의미

4.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 <표 1> Lewis 의 연어 유형
- <표 2> 『표준국어대사전』 과 『연세한국어사전』 에서 ‘떡다’의 뜻풀이 비교
- <표 3> 『新华詞典』(2004) 에서 ‘吃’의 뜻풀이
- <표 4> 『現代漢語詞典』(2005)에서 ‘吃’의 뜻풀이
- <표 5> ‘떡다’와‘吃’의 사전에서 공통적 의미
- <표 6> ‘떡다’의 연어 추출 결과
- <표 7> 중국어 ‘吃’의 연어 추출 결과
- <표 8> 한국어 “떡다” 중국어 “吃” 공통적인 의미 분류
- <표 9> 한국어 “떡다” 의 의미 중 중국어 “吃”에는 없는 의미
- <표 10> 중국어 “吃” 의 의미 중 한국어 “떡다”에는 없는 의미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외국어 학습자들이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간 결합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연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언어적인 실수나 잘못은 흔하다. 실제로 학생들의 발화나 작문을 보면 이런 언어적 능력(collocational competence)의 부족으로 인해 문법적 오류를 만들어 내거나, 문법상으로는 맞지만 담화상으로는 매우 어색한 필요 이상의 긴 발화를 만들어 내곤 한다. 외국어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언어 관계를 안다면 모국어 화자처럼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에 대한 교육은 어휘 교수학습에서 중요하다. 한국어 학습자도 한국어 언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언어숙달에 있어서 그 동안 유창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지나치게 유창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확성이 결여되는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언어 학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언어 학습의 중요성은 정확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에는 코퍼스(corpus)와 코퍼스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전을 편찬하고 어휘학습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코퍼스는 다양한 실제적 학습 자료와 통계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문맥에 따른 어휘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한국 국내에서 코퍼스는 아직 생소한 분야로서 연구 실적이 미비하며, 코퍼스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에 관한 연구가 몇몇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코퍼스를 기반으로 통계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코퍼스 자료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연관시킨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코퍼스를 이용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한국어 학계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 여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개념적인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코퍼스를 이용한 언어 추출 등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언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있지만,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어휘와 결합하는 언어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중 대조 언어학적 측면에서 언어 연구는 거의 공백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먹다' 중국어 '吃'의 대응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코퍼스 자료에서 추출한 언어 용례를 바탕으로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 '吃'의 언어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어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어 중심 어휘 교수·학습을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용 A 급 어휘인 ‘떡다’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떡다’가 실제 사용 빈도가 높으며 중심의미와 변의의미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떡다”는 가장 일찍 습득될 어휘 중의 하나이고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형성 가능한 연어 수도 많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어의 ‘떡다’와 중국어의 ‘吃’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떡다’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표준국어대사전>> 과 <<現代漢語詞典>>을 중심으로 ‘떡다’와 ‘吃’의 뜻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떡다’와 ‘吃’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연어들을 각각 정리할 것이다. 한국어 ‘떡다’ 중국어 ‘吃’에 대한 용례를 추출하기 위해 한국 21세기 세종말뭉치 현대 문어 구어 부분과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구축한 CCL 말뭉치의 현대한어부분을 이용하였으며 말뭉치 분석 도구로 Editplus3 Antconc3.2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능에 따라 ‘동사+명사’ 유형만 살펴보고 분류할 것이다. 분석된 용례 중에는 5회 미만의 극히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는데, 분석의 효율성을 위하여 5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연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분포 측면에서 보면 빠지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연어사전>>에서 나온 ‘떡다’의 연어를 참고할 것이다. ‘떡다’와 ‘吃’가 의미적 공통성을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에 따라 대응관계 연어와 비 대응관계 연어로 나누고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연어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구체적으로 비교 고찰한다.

2 이론적 배경

연어(collocation)는 단어와 단어가 공기 관계를 형성할 때 특정한 단어들끼리 결합하는 언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연어의 개념은 고정적이지 않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것은 연어의 연구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연어 연구는 국어학적 관점과 한국어 교육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관점에 따라 연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연어’라는 언어 현상을 탐구하여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후자는 ‘연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이루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자의 관점에서 연어의 개념을 검토한 후 중국인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를 보기로 한다.

2.1 연어에 대한 기본적 논의

본 절에서는 연어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요약하여 기술한 후, 관점에 따라 정의된 연어의 개념과 범주,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1.1 연어의 개념과 범위

연어에 대한 개념이 Firth(1957:181)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음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 주지해 온 바이다. ‘collocation’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에 소쉬르는 발화체가 일정한 언어의 구조 위에서 형성되며, 발화체(parole)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형적으로 맺는 결합적 관계에 의해 의미가 구현된다고 보았다.

Firth(1957)는 “연어는 결합하는 구성요소에 의해 일정한 의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서 연어의 의미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정의하였다.

연어의 개념 정의는 연어의 여러 가지 속성 중 어떠한 것을 우선시하여 기술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연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연어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연결되어 어떤 통일된 개념을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연어의 단위성을 중시한 정의이다. 연세 한국어 사전(1998)에서는 어떤 특정한 어휘요소와 잘 어울려 쓰이는 공기 관계를 연어로 보아 공기성에 중점을 둔 정의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90 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인지룡(1992), 이희자(1994), 홍재성(1995), 이동혁(1998), 김진혜(2000), 서상규(2002), 한영균(2002)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한편 연어의 제한된 결합 관계는 고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한 문장에서 출현하는 빈도수와 관련이 있다. 연어가 출현하는 빈도는 공기 관계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다. 연어를 고빈도 공기 관계로 정의한 논의는 강현화(1998)가 대표적이다. 그는 말뭉치에서 ‘체언+용언’의 구성을 사전적인 처리를 위하여 하나의 어휘요소가 다른 몇 개의 어휘요소와 함께 나타나는 긴밀하고 고정적인 공기관계를 연어로 정의하였다. (강현화 1998:193)주로 자연 언어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연어 목록을 추출하는 데에 적용한다. 인지룡(1992)은 연어를 ‘상호 의존적 기대치를 갖는 낱말의 결합 관계’로 파악하고, 이 결합 관계는 고정되고 폐쇄된 관용어와는 달리 개방적인 관계로 보았다. 이희자(1994)는 관용구를 의미 통사 형태론적 특성에 따라 하위분류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있다. 홍재성(1995) 연어를 ‘규칙적인 통사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어휘적 차원에서 특별히 긴밀하고 제한적인 결합 관계를 보이는 두 단어의 연쇄’로

정의하였다. 이동혁(1998)은 연어를 ‘특수한 단어끼리의 관습적인 긴밀한 구 결합체이면서, 연어의 구성단위 중 적어도 하나의 단어가 기본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았고, 김진해(2000)는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휘소들 간의 제한적 공기 관계’로 정의하였다. 서상규(2002)에서는 연어의 개념 정의에서 보통 연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의미적인 결합 관계에 주목하여, ‘의미적인 긴밀성’ ‘긴밀하고 제한적인 의미 관계’ ‘의미 해석의 투명성’등 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대부분 주관적인 것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포착해 줄 만한 기준도 명확해 보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도 어디까지 의미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연어인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국어학연구에서 연어의 개념은 단어 간의 선택 제약으로 제한된 결합관계에 의한 구성으로 본다.

최근 전산 언어학의 발달과 더불어 연어의 정의 및 활용을 말뭉치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코퍼스 언어학의 주요 연구 분야는 문법 기술, 사전 편찬, 언어 연구, 텍스트 특성 연구 등 언어의 형식면에 집중되어 있지만, 현재는 내용면으로도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코퍼스 언어학에 의해 편찬된 사전의 인용구는 인위적으로 만든 예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용법에 기초를 두고 있고, 빈번한 언어 표현을 알 수 있으며, 구어와 문어의 사용법 차이를 알 수 있고 정상적인 담화 환경에서 어휘 응용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유익한 점은 어휘적으로 더 진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Maddalena(2001)는 일본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유의어 분별 지식을 습득하는 수업과정에서 코퍼스를 활용하여 유의어 쌍들의 사용상의 차이에 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코퍼스를 통한 유의어 분석은 많은 시간적 소모에도 불구하고 이후 학습의 근간을 형성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탐구를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2005)은 ESL 작문 수업에 있어 학생들의 코퍼스 활용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코퍼스는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사용 패턴을 익히는데 유용한 언어 입력(language input)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참고수단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ESL 학습자들이 흔히 봉착하는 언어적인 문제나 작문상의 문제점들을 즉각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될 수 있었다. 한영균(2002)는 국어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어’라는 용어의 개념과 그 연구 대상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연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어의 개념 및 처리방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말뭉치 기반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어 및 연어 관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영균(2009)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축적에 있어서 코퍼스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의 연어 구성 추출 및 한일 병렬 코퍼스에서의 한국어 연어 구성의 일본어 대응 자료 추출, 한일 연어 구성 대조 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기초를 세웠다. 그러나 실제 코퍼스를 활용한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한국어 능숙도의 관계, 이와 관련한 학습전략을 조사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연어를 ‘기본적으로 한 문장 안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울려 쓰이는 단어의 결합 관계’로 본 한영균(2002)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조금 보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연어의 정의를 내린다.

2.1.2 연어의 유형

연어에 대한 유형 분류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연어를 다양하게 하위분류(Carter 1987; Hill 2000; Howarth 1996)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유형 분류는 연어의 정의, 용례, 어법을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 (Benson 외, 1997 3 판, 이하 BBI 라 칭함) 사전이다. BBI 사전은 연어 구성을 크게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전치사나 부정사, 절과 같은 기능어를 포함하지 않고 명사, 형용사, 동사, 그리고 부사 등의 내용어로만 구성된 것이다. 후자는 지배적 단어(dominant word)와 전치사 또는 부정사나 절과 같은 문법 구조로 구성되는 구이다.

Lewis(2000:133)는 공기(co-occurrence)하는 단어들을 연어로 정의한다면 그 범위가 매우 폭 넓으나 규칙적으로 공기하는 연어들을 그룹화하여 20 종류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연어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Lewis의 연어 유형

유형	예
(1)adjective+ noun(형용사+ 명사)	a difficult decision
(2)verb+ noun(동사+ 명사)	submit a report
(3)noun+ noun(명사+ 명사)	radio station
(4)verb+ adverb(동사+ 부사)	examine thoroughly
(5)adverb+ adjective(부사+ 형용사)	extremely inconvenient
(6)verb+ adjective+ noun(동사+ 형용사+ 명사)	revise the original plan
(7)noun+ verb(명사+ 동사)	the fog closed in
(8)discourse+ verb(명사+ 동사)	to put in another way
(9)multi-word prepositional phrase(다단어 전치사구)	a few years ago
(10)phrasal verb(구동상)	turn in
(11)adjective+ preposition(형용사+ 전치사)	aware of
(12)compound noun(복합명사)	fire escape
(13)binomial(이항식 표현)	backwards and forwards
(14)trinomial(삼항식 표현)	hook, line and sinker
(15)fixed phrase(고정 어구)	on the other hand

(16)incomplete fixed phrase(불완전 고정 어구)	a sort of...
(17)fixed expression(고정 표현)	not half?
(18)semi-fixed expression(반 고정 표현)	see you later/tomorrow
(19)part of a proverb(속담의 일부)	too many cooks...
(20)part of quotation(인용문의 일부)	to be or not to be...

이 연어의 유형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연어의 유형 중에서 어휘적 연어의 하위 분야인 “동사+ 명사”만을 살펴볼 것이다.

2.2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

연어가 가지는 특성의 틀을 잡아감에 따라 이를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도 늘어나게 되었다. 문금현(2002)에서 각종 말뭉치를 바탕으로 연어 목록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연어 학습 방법으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연어 제시, 수업 방안 등을 언급하였다. 한송화·강현화(2004)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 개념, 연어의 중요성과 어휘 교육에서 연어가 가지는 중요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어휘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연어를 살펴보았다.

외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모국어 화자와 같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풍부한 어휘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많은 양의 어휘를 암기하면 유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여겨왔다. 즉, 어휘량은 의사소통 능력에 비례한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어휘를 많이 외운다고 해서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ill(2000)은 2000 개의 개별 단어에 대한 연어를 알고 있는 학습자는 더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서 연어 학습 중요성을 강조 했다. 어휘력은 암기된 어휘가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어휘 즉, 문법에 맞게 구조화된 어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적법한 어휘들의 결합 관계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다. Lewis(2000: 53-56)어휘 교육에서 연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 어휘부는 자의적이지 않다. 즉 어휘의 결합방식은 자의적이지 않다.

나: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는 학습을 쉽게 만들어 주는 패턴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예측 가능한 패턴들을 발견하도록 동기화될 수 있다.

다: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대상의 70% 정도가 모두 고정된 표현들이며, 이렇게 막대한 부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언어의 중요성이 있다.

라: 실제 모국어 화자는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많은 언어 표현을 기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들을 불러서 사용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언어 표현을 얼마나 자주 접할 수 있는가는 언어 학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마: 언어는 유창성을 높여 주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바: 복잡한 생각이 간단한 어휘적 언어로 실현되기도 한다.

사: 언어는 사고를 쉽게 만든다.

아: 덩어리로 발음과 함께 학습하면 강세와 억양이 더욱 좋아진다.

자: 텍스트의 이해와 어휘의 습득을 위해서는 덩어리로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 교육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 능력으로 연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외국어 학습자는 어휘의 의미 파악보다는 표현하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개별 어휘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의미가 실현되는 어휘들의 결합 관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언어를 통해 어휘들의 공기 관계를 학습함에 따라 어휘 표현 능력을 비롯한 어휘 사용 능력까지 보장받게 된다. 둘째 언어는 개별 어휘의 다의적 용법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개별 어휘의 의미를 일일이 암기하기보다 특정한 의미가 나타나는 언어를 학습하면 고정적으로 어휘부에 저장되어 입력과 출력이 용이하여 어휘 의미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셋째 언어를 통해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어 통사적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문법요소는 단어의 결합 시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언어는 조사나 어미가 포함된다. 언어는 한국어의 긴밀한 통사 구조 위에서 결합되기 때문에 어휘가 사용되는 문법적인 환경도 학습할 수 있다. 이것은 언어가 어휘 형태에 대한 지식과 그 내적 통사 구조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Nattinger&Decarrico(1992:13)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 능력은 “이미 만들어진 형태/ 기능의 결합을 선택하고 복원하는 방법을 아는 것 (knowing how to select and retrieve ready-made form/function composites)”이라고 하였다. 즉, 적절한 문맥 속에서 주어진 용법에서 고정적으로 쓰이는 언어를 선택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맥락에서 출현하는 언어의 특성은 학습자에게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에 근거하여 언어의 학습적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언어는 문법과 어휘 학습의 중간 매개체로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법체계를 무의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어휘사용을 통해 언어습득의 궁극적 목표인 언어의 정확성 및 유창성을 높일 수 있다.

(3) 적절한 언어 사용을 통해 표현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가령, 언어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간단한 언어 표현을 하기 위해 긴 표현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4) 특정 어휘와 연합되는 패턴을 앞으로써 듣기 및 읽기 활동에서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

(5) 학습자들로 하여금 연어 결합 유형에 대해 인지하도록 해 앞으로의 어휘 습득에 있어서 독립적인 학습 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어휘를 각각의 독립적인 어휘가 아닌, 문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덩어리 단위라는 인식을 높임으로써 특히 중국의 한국 학습자들에게 부족한 유의미 학습, 하향식 접근 방법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는 인간의 언어 능력을 유기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데 어휘 정보, 문법 정보, 활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준다.

3 한국어 ‘먹다’의 연어와 중국어 ‘吃’의 연어 대응 양상

3.1 ‘먹다’ 와 ‘吃’ 한국어 중국어 사전 뜻풀이

3.1.1 ‘먹다’의 사전 뜻풀이

『표준국어대사전』(2008.10.9, 개정판)에서는 ‘먹다’를 ‘먹다¹’, 와 ‘먹다²’의 두 가지 표제어로 나누어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사는, 그 기술 방식은 특별히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먹다’가 사용된 용례의 문형 정보를 통해 의미를 배열하였다.

『연세한국어사전(2000 년)』에서는 사전의 특징상 ‘먹다’의 문형 정보가 앞서 제시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크게 5 가지(먹^[I] 먹^[II] 먹^[III] 먹^[IV] 먹^[V])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 두 사전에서 동사 ‘먹다’에 대한 의미 제시는 모두 중심 의미로부터 배열한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예문에 대해서도 ‘목적어+ 먹다’의 연어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전이 ‘먹다’의 다양한 변이 의미에 대한 제시 순서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에 대한 비교는 다음 표 2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먹다’의 뜻풀이 비교

	뜻풀이 (〈표준〉을 기준으로)	<표준>에서의 순위		<연세>에서의 순위
공통으로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먹 ¹ 「1」	=	먹 ^[I] ㄱ. 음식 등을

등재되어 있는 뜻	들여보내다.			1	ㄴ. 액체로 된 것을
					ㄷ. 약 등을
	담배나 아편 따위를 피우다.	떡 ¹ 「2」	=	떡 ^[1] 2	
	연기나 가스 따위를 들이마시다.	떡 ¹ 「3」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떡 ¹ 「4」	=	떡 ^[1] 3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떡 ¹ 「5」	=	떡 ^[1] 6	
	겁, 충격 따위를 느끼게 된다.	떡 ¹ 「6」	=	떡 ^[1] 9	
	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	떡 ¹ 「7」	=	떡 ^[II] 1	
	(속되게) 뇌물을 받아 가지다.	떡 ¹ 「8」	=	떡 ^[II] 2	
	수익이나 이문을 차지하여 가지다.	떡 ¹ 「9」	=	떡 ^[1] 4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	떡 ¹ 「10」	=	떡 ^[1] 7	
	어떤 등급을 차지하거나 점수를 따다.	떡 ¹ 「11」	=	떡 ^[III]	
	(속되게)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다.	떡 ¹ 「13」	=	떡 ^[1] 8	
	남의 재물을 다루거나 맡은 사람이 그 재물을 부당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	떡 ¹ 「15」	=	떡 ^[1] 5	
	날이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하다.	떡 ² 「1」	=	떡 ^[V]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고루 퍼지다.	떡 ² 「2」	=	떡 ^[IV] 2	
	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가거나 퍼지다.	떡 ² 「3」	능	떡 ^[IV] 1. 원래의 상태가 손상되다.	
	매 따위를 맞다.	떡 ¹ 「14」		관용구에서 등재	
달리 등재되어 있는 뜻	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거나 쓰이다.	떡 ² 「4」		없음	
	구기 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떡 ¹ 「12」		없음	
	(어떤 규제나 조치 등을) 당하다.	없음		떡 ^[1] 10	

이상 두 종류의 사전에서 ‘먹다’의 의미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사전에서는 ‘먹다’의 다의어적인 의미 양상을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자동차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와 같은 용례는 두 종류의 사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의 ‘-에’항목 ④가 이와 비슷한 의미의 항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적합한 용례는 아니며 문형 정보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더위나 추위를 먹다’의 의미는 사전에서 그 용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사전마다 ‘먹다’의 의미배열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④항목의 ‘마음을 먹다’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 ③항목에 배열되어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⑤항목의 ‘나이를 먹다’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 ⑥항목의 배열되어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밥이나 물, 약 등의 음식을 배 속에 들여보낸다는 뜻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데 비해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하나의 큰 의미 항목 속에 세 가지 작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3.1.2 ‘吃’의 사전 뜻풀이

『新华词典』(2004) 중의 동사 ‘吃’의 의미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新华词典』(2004) 에서 ‘吃’의 뜻풀이

단어	뜻풀이	예문
吃	1. 把食物等放到嘴里经过咀嚼咽下去(包括吸,喝) 2. 依靠某种事物生活 3. 吸收(液体) 4. 消灭(用于军事,棋戏) 5. 承受,经受 6. 受,挨 7. 耗费	1. 吃饭,吃药 2. 吃老本 3. 纸吃墨 4. 拿车吃他的炮 5. 吃得消,吃得住 6. 吃惊,吃批评 7. 吃力,吃劲

	8. 被 (多用于早期白话)	8. 吃他耻笑
--	----------------	---------

다음 『現代漢語詞典』(2005)에 제시된 ‘吃’의 의미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現代漢語詞典』(2005)에서 ‘吃’의 뜻풀이

단어	뜻풀이	예문
吃 ¹	1.把食物等放到嘴里经过咀嚼咽下去 2. 饮, 喝 3. 吸, 吸收(水, 水汽, 湿气) 4.. 吸, 抽(烟, 鸦片等) 5. 承受, 经受 6. 犹跌(古) 7. 得到, 获得 8. 吞没, 浸入水中 9. 赌博用语, 指收取赌注 10. 弈棋用语, 指出去对方棋子 11. 军事上比喻消灭敌人 12. 在某一出售食物的地方吃.按某种标准吃 13. 指依赖某种事情来生活 14. 欺压, 压迫 15. 用, 费, 花费	1. 吃饭, 吃奶, 吃药 2. 吃酒, 吃茶 3. 吃墨 4. 吃烟, 吃粉笔灰 5. 吃亏, 吃苦 6. 吃交 7. 吃外快, 吃红包 8. 船吃水 9. 给庄家吃了 10. 吃车和炮 11. 吃掉敌军 12. 吃馆子 13. 吃老本, 吃父母 14. 吃人 15. 吃力, 吃劲
吃 ²	说话时字音重复或词句中中断的现象.	口吃

이상 두 종류의 사전에서 보듯 ‘吃’는 사전에 따라 그 분류 방법과 해석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現代漢語詞典』(1994)에서 ‘吃’를 한 가지 표제어로 설정한 반면에 『現代漢語詞典』(2005)에서는 두 가지 표제어로 나누어 설정한다.

둘째, 두 사전에서 인용한 예가 많이 다르다.

셋째, 두 사전에서 모두 ‘吃’의 다의적인 의미 양상을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吃不准’ 등 의미 양상은 두 종류 사전에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3.1.3 한국어 중국어 사전에서 나온 뜻풀이 비교

『표준국어대사전』 및 『現代漢語詞典』(2005)을 바탕으로 사전에서 나온 뜻풀이를 정리하여 분류하면 다음 같은 공통점을 알 수 있다.

<표 5> ‘먹다’와‘吃’의 사전에서 공통적 의미

‘먹다’와‘吃’의공통점
1.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속에 들여보내다
2.담배나 아편 따위를 피우다
3.연기나 가스 따위를 들이마시다.
4.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
5.겁, 충격 따위를 느끼게 되다.
6.육 편잔 매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
7.매 따위를 맞다
8.남의 재물을 다루거나 맡은 사람이 그 재물을 부당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
9.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거나 쓰이다

앞에서 제시하는 것을 보면 공통점 말고 차이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사전을 보면 얻을 수 있는 결과일뿐이다. 실제 분포는 더 넓은 것 같다. 문맥 중에서 공통점 및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말뭉치 중에 나온 용례를 통해 더 자세히 구분할 것이다.

3.2 ‘먹다’ 와 ‘吃’ 연어 추출

기존 사전의 검토를 통해서 ‘먹다’가 목적어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먹다’의 연어 사용 빈도 조사 작업이 ‘먹다’와 결합된 목적어 종류의 출현 빈도

조사 작업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빈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먹다’ “吃”의 용례 중에서 목적어를 추출한 다음 한중 대응 및 비 대응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3.2.1 한국어 “먹다”의 연어 추출

한국어 “먹다”의 연어 및 용례를 추출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21세기 세종말뭉치의 현대문어와 현대구어부분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다룰 연어와 용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첫째, 용례 추출할 때 작업의 반복성을 줄이기 위해서 21세기 세종말뭉치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의 내용을 한 파일로 합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copy *.txt 1.txt’ 명령의 실행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둘째 단계는 동사 ‘먹다’가 들어가 있는 용례들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EditPlus3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말뭉치의 형태소 분석 주석은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먹다’의 용례를 추출했을 때 ‘찾을 말’ 칸에서 ‘먹다/VV’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먹다/VV’의 형식으로 찾으면 ‘잡아먹다, 해먹다, 따먹다’ 등 ‘먹다’의 어근이 들어가 있는 합성어도 같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Wt 먹.*먹/VV’라는 형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으로 찾은 결과는 ‘먹어치우다, 먹어버리다’ 등 ‘먹다’를 본용언으로 하는 단어도 같이 추출되었지만 이들 단어에 ‘먹다’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결과 분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셋째 단계는 21세기 세종말뭉치 중에서 추출된 ‘먹다’ 용례를 바탕으로 하여 ‘먹다’와 결합된 목적어를 찾는 단계이다. 이 작업은 ‘Antconc’라는 빈도 추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작업 절차는 중국어 연어 추출 방법과 동일하므로 3.2.2에서 중국어 “吃”의 연어 추출로 보이기로 한다.

3.2.2 중국어 “吃”의 연어 추출

중국어 “먹다”의 연어 및 용례를 추출하기 위해 북경대학에서 구축한 CCL 말뭉치의 현대한어부분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다룰 연어와 용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첫째, CCL 말뭉치의 검색바탕화면(인터넷)에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중국어 어휘를 키워드로 입력하고 용례를 추출한다. [그림 1]은 CCL 말뭉치에서 “吃”을 검색할 바탕화면이다.

使用说明 高级查询

吃 查询

现代汉语 古代汉语

2009-07-20更新

CCL语料库规模：4.77亿字(1.06GB)

语料分布：现代 [字数] 古代 [字数]

[그림 1]

다음 [그림 1]에서 오른쪽에 있는 ‘查询’버튼을 누르면 모든 ‘吃’를 포함하는 텍스트가 모두 추출된다.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둘째, 중국어 “吃”를 포함하는 모든 용례 텍스트를 저장한다. [그림 2]를 보면 왼쪽 우측에 “下载”라는 버튼이 있고 그 옆에 条 라는 글이 있다. 중국어 “吃”를 포함하는 모든 텍스트를 저장하려면 우선 중국어 “吃”를 키워드로 검색한 모든 용례수를 란에 입력한다. 다음 “下载”라는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파일로 모든 용례수가 저장된다.

셋째, ‘吃’ 용례를 바탕으로 하여 ‘먹다’와 결합된 목적어를 찾는 단계이다. 이 작업은 ‘Antconc’라는 빈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용례가 들어있는 파일을 Antconc 에서 ‘먹다’의 n+ 1 형식으로 연어에 대한 추출 작업을 진행한다.

『표준』	『연세』		
떡 ¹ 「1」	떡 ^[I] 1	3312	밥(249),음식(122), 물, 커피, 술, 약, 저녁, 점심, 회, 등
떡 ¹ 「2」	떡 ^[I] 2	136	담배(2) 아편 등
떡 ¹ 「3」		83	연탄, 가스 기운(1) 탄내
떡 ¹ 「4」	떡 ^[I] 3	1372	마음(52) 애(16), 생각(3) 앙심,
떡 ¹ 「5」	떡 ^[I] 6	165	나이(64) ……살(19) 시간 등
떡 ¹ 「6」	떡 ^[I] 9	204	겁(22), 충격(2) 쇼크 등
떡 ¹ 「7」	떡 ^[II] 1	473	욕(9), 모욕(2), 지청구(1), 핀잔(2)
떡 ¹ 「8」	떡 ^[II] 2	288	뇌물(1), 돈(8)
떡 ¹ 「9」	떡 ^[I] 4	180	소리(小利)(1) 천원 구전 등
떡 ¹ 「10」	떡 ^[I] 7	101	기름 습기 물 등
떡 ¹ 「11」	떡 ^[III]	287	일등 우승 100 점 등
떡 ¹ 「13」	떡 ^[I] 8	19	여가 소녀 등
떡 ¹ 「15」	떡 ^[I] 5	198	공금, 돈, 재산 등
떡 ² 「1」	떡 ^[V]	80	칼 대패 등
떡 ² 「2」	떡 ^[IV] 2	67	폴 화장 왁스 등
떡 ² 「3」	떡 ^[IV] 1	72	구멍을 먹는 수박.(1) 옷에, 과일에, 벌레가, 등
떡 ¹ 「14」	관용구에서 등재	91	주먹
떡 ² 「4」	없음	58	기름 전기 철근 비용
떡 ¹ 「12」	없음	81	골 한 골 등
없음	떡 ^[I] 10	34	경고(1) 구류, 벌점, 등

중국어 ‘吃’용례는 총 47322 개 있고 그 중 5 번 이상 나오는 것은 1250 개 있다. ‘吃’의 연어 추출 결과 다음 표 7 과 같다.

<표 7> 중국어 ‘吃’의 연어 추출 결과

의미	연어 빈도수	연어 예시
吃 ¹ 1	5300	饭, 奶, 药, 晚饭, 午饭, 早饭 等
吃 ¹ 2	148	酒, 茶 等
吃 ¹ 3	125	墨
吃 ¹ 4	207	烟 粉笔灰,
吃 ¹ 5	681	亏, 苦 苦头 吃苦耐劳 一惊等
吃 ¹ 6	21	吃交
吃 ¹ 7	601	吃外快, 吃红包
吃 ¹ 8	89	船吃水
吃 ¹ 9	45	给庄家吃了
吃 ¹ 10	71	吃车和炮, 吃他的兵
吃 ¹ 11	82	吃掉敌军, 吃一个团等
吃 ¹ 12	209	吃馆子 吃饭店 吃食堂 等
吃 ¹ 13	361	吃老本, 吃父母, 吃利息 皇粮
吃 ¹ 14	30	吃人
吃 ¹ 15	507	吃力, 吃劲
吃 ² 1	98	口吃

3.3 대응 관계 연어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전만 보면 의미상의 공통점이 6 개 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말뭉치를 바탕으로 추출한 연어 결과를 다시 한 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한국어 “먹다” 중국어 “吃” 공통적인 의미 분류

표시방식	의미 분류
S-1	(고체/액체) 씹어서 음식을 배속에 들여보내다.
S-2	(기체)--흡연하다 -- 담배나 아편 연기나 가스 따위를 들이마시다.
S-3	(액체)--흡입 -- 물이나 습기 따위를 들이마시다.
S-4	수동(受動)당함 -- 남으로부터 욕이나 핀잔을 듣거나 규제나 조처 등을 당하다.
S-5	획득 취득(불법 수단)--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차지하다.
S-6	획득 취득(적당 수단)--수익이나 이문을 차지하여 가지다.
S-7	소비, 소모하다--돈이나 물자 따위를 듣거나 쓰이다.

<표 8>를 보면 S-6, 즉 수익이나 이문을 차지하여 가지다.--획득 취득(적당 수단) 같은 의미를 사전에서 확인할 수 없다. 말뭉치를 통해 더 넓은 분포를 보인다.

3.3.1 기본의미 대응 관계(S-1)

‘먹다’의 기본 의미는 사전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되고 있다.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해 배 속에 들여보내다. (밥을 먹다/ 술을 먹다/ 약을 먹다/ 물을 먹다)

한편 중국어 ‘吃’의 기본 의미는 사전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되고 있다.

把食物等放到嘴里经过咀嚼咽下去(뜻: 음식물을 입으로 씹어 배 속에 들여보내다)

두 기술은 모두 사전에서 첫 번째 의미로 되어 있다. ‘먹다’와 ‘吃’의 뜻풀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먹다’의 의미설명 중의 ‘음식 따위’에 대응하고 중국어는 ‘食物’인데 이는 주로 고체 음식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어 ‘吃’의 해설은 ‘입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씹어’와 같은 과정이 있는 것이 보인다. 액체는 씹는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므로 중국어 ‘吃’의 사전의 첫 번째 의미는 주로 고체음식을 가리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반면은 액체를 마시는 행위와 관련되는 중국어 ‘吃’의 의미는 사전에서 두 번째 항목인 ‘yin he(뜻: 마시다)’에서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어 ‘먹다’의 사전적 첫 번째 항목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 보내다’가 중국어 ‘吃’에서는 사전의 ①항목과 ②항목으로 나누어서 대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 중국어 ‘吃’의 두 번째 의미는 분명히 ‘yin he.(뜻: 마시다)’로 기술되어 있는데 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음료수를 먹다’안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가? 이것은 바로 중국어 ‘吃’의 변화 과정에서 의미 축소과정이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

모든 언어는 생성과 변화와 소멸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 언어의 변화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변화에는 음운의 변화, 형태의 변화, 의미의 변화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의미의 변화에는 의미의 확장, 의미의 축소, 의미의 완전한 변화가 있다. 초기 중국어의 ‘吃’는 ‘먹다’와 ‘마시다’ 두 가지 의미 양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 현대 중국어의 주로 ‘먹다’로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吃’는 현대중국어에서 ‘마시다’의 용법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②항목에서 기술하고 있어서 아직은 완전히 소실하지 않으며, 중국 남부 지방 방언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표준말은 중국 북방에서부터 기원하여 다른 언어권을 병합하는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에 남부 지방의 방언에서 고대어의 표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3.2 흡연 의미 (S-2)

담배를 먹다/ 아편을 먹다/ 마약을 먹다/ 가스를 먹다/ 탄내를 먹다/ 연기를 먹다

한국어 ‘먹다’ 중국어 ‘吃’ 모두 ‘피우다’의 뜻으로 나타난다. ‘담배를 먹다’ 연어에서 ‘먹다’는 ‘피우다’의 뜻으로 사용되며 중국어의 ‘吸 抽’로 대응된다. ‘담배를 먹다’는 ‘담배를 피우다’와 연어적 유의 관계를 가지며 중국어에서는 ‘吸烟’으로 대응된다. 하지만 한국어 ‘담배를 먹다’는 일상어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북방에서는 ‘담배를 피우다’를 ‘吸烟 , 抽烟’으로 표현하고 남방에서는 ‘吃烟’으로 표현한다. ‘먹다’는 ‘아편’과 결합할 수 있지만, ‘吃’는 담배만 결합할 수 있는데 ‘아편’과 결합할 수 없다.

3.3.3 흡입 의미 (S-3)

기름을 먹다/ 습기를 먹다

이 분류의 연어는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 천이나 종이, 기름, 물감 따위를 빨아들이다’의 뜻을 나타낸다. ‘먹다’와 ‘吃’는 모두 흡입의 의미가 있다. 두 단어의 흡입의 의미는

모두 사람이나 동물이 입이나 코와 같은 신체 부위를 통하여 어떤 물질을 몸 안으로 들여보내다는 특성이 있다. ‘먹다’와 ‘吃’의 주체는 유정물과 무정물로 쓰일 수 있는데 주체가 유정물인 경우 사람이나 동물, 곤충이 쓰일 수 있다. ‘먹다’의 무정물 주체는 ‘스폰지’ 같은 것으로 쓰이는 반면에 ‘吃’의 주체가 물품으로 쓰인다. ‘먹다’와 ‘吃’의 무정물 주체가 모두 ‘기계’로 쓰일 수 있다. 또한 객체의 선택에 따라 ‘먹다’는 ‘음식을 섭취하다’, ‘마시다’ ‘피우다’ ‘흡기하다’ ‘흡수하다’ 등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吃’는 음식을 섭취하다 ‘흡기하다’ ‘흡수하다’로 쓰일 수 있지만 ‘마시다’와 ‘피우다’로 쓰일 수 없다.

화장 먹다 / 풀 잘 먹다

‘화장 잘 먹다’는 ‘화장 스미다’의 뜻으로 ‘화장 받다’로도 쓰인다. 중국어의 ‘上粉’로 대응된다. ‘풀 먹다’와 언어적 유의 관계를 이루며 중국어의 ‘上漿’으로 대응된다. 직역하면 ‘풀 오르다’로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언어 관계 중국인 학습자에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3.3.4 당함 의미 (남으로부터 욕이나 핀잔을 듣거나 규제나 조처 등을 당하다.) (S-4)

욕을 먹다/ 핀잔을 먹다/ 꾸지람을 먹다/ 주먹을 먹다/ 구류를 먹다/ 충격을 먹다/ 겁을 먹다

‘당함’의 의미 기능 언어에는 ‘주먹을 먹다, 욕을 먹다, 핀잔을 먹다’등이 포함된다.

‘먹다’와 ‘吃’는 모두 ‘당함의 의미’가 있다. ‘먹다’와 ‘吃’모두 외부로부터 나쁜 영향을 입거나 받는 ‘당함의 의미’가 있지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많이 다르다. ‘먹다’는 주로 ‘욕을 듣다’ ‘주먹을 맞다’ ‘병에 걸리다’와 같이 신체와 정신적인 나쁜 영향을 받는 반면에 ‘吃’는 주로 ‘소송을 당하다’ ‘경고를 받다’ ‘손해를 보다’ ‘벌을 받다’와 같은 물질이나 정신적인 나쁜 영향을 받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다.

‘욕을 먹다, 꾸지람을 먹다, 핀잔을 먹다’에서 ‘먹다’는 ‘듣다’의 뜻을 나타낸다. 이 경우 중국어의 “受, 挨의 뜻으로 사용된다. ‘욕을 먹다, 꾸지람을 먹다, 핀잔을 먹다’는 각각 중국어로는 ‘挨骂, 挨批评, 挨刺儿’로 대응된다. 이 경우에 ‘먹다’는 ‘받다, 당하다’ 즉 ‘당함’의 의미를 가진다. ‘받다, 당하다’로 대치할 경우 ‘욕’과 ‘꾸지람, 핀잔’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욕을 받다’와 같은 결합은 사용 불가능한 표현이 되고 ‘욕을 당하다’는 언어를 이루기는 하지만 ‘욕을 먹다’와는 다른 ‘인격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다’의 뜻으로 된다. 그런데 ‘꾸지람, 핀잔’은 ‘받다, 당하다’와의 결합에서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서 언급하지 않는 의미

더위를 먹다

여름철에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기다는 의미이다. ‘더위를 먹다’는 계절이나 자연환경을 의인화하여 그 힘에 의해 신체상의 부정적인 상태변화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더위를 먹다’는 중국어의 ‘中暑’에 대응된다.

3.3.5. 획득 취득(불법 수단) (S-5)

뇌물을 먹다/ 공금을 먹다

‘획득 취득(불법 수단)의미 기능의 언어에는 ‘뇌물을 먹다, 공금을 먹다’등이 포함된다.

이 의미는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눌러 소중한 영토나 재산을 빼앗거나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대응하거나 조롱하고 시비를 거는 태도의 의미로 보인다.

‘뇌물을 먹다’는 ‘뇌물을 수수하다’와 유의관계를 가지며 중국어로는 ‘受贿, 受贿赂’로 대응된다.

‘공금을 먹다’는 ‘공금을 횡령하다’와 유의 관계를 가지며 중국어의 ‘贪污公款’으로 대응된다.

3.3.6 획득 취득(적당 수단) (S-6)

일등을 먹다/ 100 점을 먹다/ 우승을 먹다

3.3.7 소비, 소모하다--돈이나 물자 따위를 들거나 쓰이다. (S-7)

자동차는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
냉장고는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계속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의 용례는 <표준국어대사전>뿐만 아니라, <연세한국어사전> <우리말큰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먹는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거나 동물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정물에 대해서도 범주를 넓혀 사용된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자동차는 기름을, 냉장고는 전기를 마치 음식물처럼 먹고, 마시는, 소비를 통해 가동하는 동력을 얻는다. 여기서의 ‘먹다’는 ‘어떤 기계나 전자제품의 가동을 위해 연료나 자원을 소비하다’의 의미로 확장된다.

지금까지 ‘먹다’와 ‘吃’의 대응관계 연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분류의 연어에서 ‘먹다’는 ‘기본의미, 흡연, 흡수, 당함, 취득, 소비’의 의미를 나타냈다. 중국어와의 대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의미’는 한국어 ‘먹다’의 사전적 첫 번째 항목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가 중국어 ‘吃’에서는 사전의 ①항목과 ②항목으로 나어서 대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흡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어 ‘담배를 먹다/ 아편을 먹다/ 마약을 먹다’는 중국어의 ‘吸烟/抽大烟/吸毒’로 대응되었고, ‘흡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어 ‘기름을 먹다/ 습기를 먹다/ 화장을 먹다’는 ‘浸油/受潮/上装’로 대응되었다. ‘당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어 ‘뇌물을 먹다/ 공금을 먹다/ 충격을 먹다/ 욕을 먹다/ 더위를 먹다’는 ‘受贿/贪污公款/吃惊/挨骂/中暑’로 대응되었다. ‘소비’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어 ‘전기를 먹다/ 기름을 먹다’는 ‘费电/费油’로 대응되었다.

3.4 비 대응 관계

3.4.1 한국어 “먹다”의 의미 중 중국어 “吃”에는 없는 의미

<표 9> 한국어 “먹다”의 의미 중 중국어 “吃”에는 없는 의미

표시방식	의미
K-1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
K-2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풀다.
K-3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K-4	구기 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K-5	날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하다.
K-6	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가거나 퍼지다.

k-1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

귀가 먹다

‘귀가 먹다’는 ‘귀가 가다, 귀가 멀다, 귀가 어둡다’의 뜻으로 중국어의 ‘耳聋, 耳背’로 대응된다. ‘먹다, 가다, 멀다, 어둡다’라는 단어는 개념적 의미에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귀’와 어울려 연어를 이룰 때 연어적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

귀가 먹다-귀가 가다-귀가 멀다-귀가 어둡다: 耳聋 耳背

k-2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풀다.

마음을 먹다/ 양심을 먹다/ 야심을 먹다

'먹다'는 '어떤 감정을 품다', '어떤 감정이 들다, 생기다'의 의미로 확장된다. 이는 음식물이 계속 배속에 들어가 머물러 있는 체험이, 감정이나 느낌의 영역으로까지 범주를 넓혀서 그것이 계속 자신의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으로 개념화 한 결과이다.

마음을 먹다: 下决心

k-3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나이를 먹다

'세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린애 같니?'는 이러한 신체적인 체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매 해가 지남에 따라 나이가 한 살씩 많아지고 축적되는 것을, '먹는' 행위를 통해 음식물이 자신의 배에 쌓이는 것으로 이해하여 '나이를 먹다'라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게 된 것이다. '나이를 먹다'에서 '먹다'는 다른 단어로서 대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연어로 통사 구조가 다른 '나이가 들다'가 있다. '나이를 먹다'는 중국어로 '上年纪, 上岁数'로 되며 직역하면 '나이가 올라가다, 연세가 올라가다'로 된다.

나이를 먹다: 上年纪, 上岁数

k-4 구기 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골을 먹다

이 의미는 상당히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먹다'는 주로 뭔가를 얻고, 차지하고, 획득하는 개념이었는데, 여기서는 '잃다'로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골이 우리 팀 골문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 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 골을 먹었다'라고 하면 '한 골을 지다' '한 골을 잃다'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방심하는 사이에 한 골을 먹었다'라는 예문에서 정확한 주체는 '우리 팀의 골대'가 골을 먹은 것이지만 환유에 의해 '우리'가 한 골을 먹은 것이 된다.

골을 먹다-한 골을 지다: 输了一球

k-5 날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하다.

대패가 먹다/ 칼날이 먹다

이 연어들은 ‘대패나 날 등이 잘 들다’의 뜻으로 사용되며 ‘대패가 먹다, 칼날이 먹다’는 ‘대패가 들다, 칼날이 들다’와 언어적 유의 관계를 이룬다. 중국어에서는 ‘刨子好使/快刀锋利’으로 대응된다.

대패가 먹다- 대패가 들다: 刨子好使、快
칼날이 먹다-칼날이 들다: 刀刀锋利

K-6 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가거나 썩지다.

벌레가 먹다/ 썩이 먹다/ 버짐이 먹다

이 분류의 연어는 원래의 상태가 손상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벌레가 먹다’는 ‘벌레가 끼다’의 뜻으로 중국어의 ‘生虫’으로 대응되며 ‘썩이 먹다’는 ‘썩이 슬다’와 언어적 유의 관계를 가지면서 중국어의 ‘生虫, 蛀蚀’로 대응되며, ‘버짐이 먹다’는 ‘버짐이 피다/자라다’와 언어적 유의 관계를 가지면서 중국어의 ‘长藓’으로 대응된다.

벌레가 먹다--벌레가 끼다 :生虫
썩이 먹다--썩이 슬다: 生虫, 蛀蚀
버짐이 먹다--버짐이 피다--버짐이 자라다: 长藓

3.4.2 중국어 “吃” 의 의미 중 한국어 “먹다”에는 없는 의미

<표 10>중국어 “吃” 의 의미 중 한국어 “먹다”에는 없는 의미

표시방식	의미
C-1	赌博用语, 指收取赌注
C-2	消灭, 除掉, 抓住 (军事, 围棋, 象棋用语)
C-3	在某一出售食物的地方吃
C-4	吞没, 侵入水中
C-5	指依赖某种事情来生活

c-1, c-2, c-4 의 용례가 많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c-2 用车吃马 (차로 말을 먹다)

c-4 船吃水很深(배의 흡수(吃水)가 무척 깊다)

c-3 在某一出售食物的地方吃

吃 食堂/ 吃 单位

吃食堂은 동빈구조로 ‘食堂’이 ‘吃’의 대상이다. 그런데 식당은 건물인데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여기서 ‘吃食堂’이란 말은 ‘식당을 먹다’가 아니라 ‘식당에서 먹다’라는 뜻이다.

吃的 파생의미는 ‘먹는 행위’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도구나 장소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C-5 指依赖某种事情来生活

吃父母/ 吃国家/ 吃利息

吃的 파생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에 의지하여 생활하다’는 개념이다. 앞서 ‘도구를 이용해서 먹는 행위’에서 출발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도구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물건의 힘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은유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물건을 추상화 시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먹다’와 ‘吃’의 비 대응 관계 연어를 살펴보았다. 한-중 방향을 보면 ‘귀가 먹다. 마음이나 감정, 나이 증가, 경기 중에 점수를 잃다’ 등 6 가지로 나누었다. 특히 ‘마음이나 감정, 나이 증가’ 이 두 가지 말뭉치 중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중-한 방향을 보면 5 가지로 나누지만 그 중에 c-3 (在某一出售食物的地方吃/ 음식물을 파는 장소에서 먹다), C-5 (指依赖某种事情来生活/ 어떤 일에 의지해서 산다) 이 두 가지 의미에 해당하는 용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언어적 측면에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중 대응 연구에 접근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휘 의미론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어휘의 계열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고에서는 단어의 결합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언어 의미가 중국어와는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말뭉치를 통해서 비교 고찰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부분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밝히고 선행연구에 대해 되돌아보았으며 기본적인 논의 부분에서는 언어의 개념, 언어의 유형에 대해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모국어 화자의 언어적 관습으로서 통사론적 측면에서 설명되지 않는,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휘소들 사이의 공기 결합 관계를 언어로 보았다.

한-중 언어의 대응관계 비교에서는 ‘먹다’와 결합하는 언어를 중국어 ‘吃’의 대조 속에서 대응관계 언어와 비 대응 관계 언어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먹다’는 언어를 이룬 후 의미적인 측면에서 ‘吃’과 일대일의 대응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비 대응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먹다’와 결합하는 언어들은 기본의미에서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서술어가 언어를 이루면서 언어적 유의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 유의 관계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먹다’와 ‘吃’의 기본 의미를 고찰한 결과는 ‘먹다’의 사전적 첫 번째 의미인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가 ‘吃’의 사전의 ①항목(먹다)과 ②항목(마시다)으로 나누어서 대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吃’의 변화 과정에서 의미가 축소과정이 있어서 ‘마시다’의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던 것이다.

둘째, ‘먹다’와 ‘吃’의 의미 양상을 분석하여 본 결과 ‘먹다’에는 주로 ‘나이 들다’ ‘마음 감정’ 등의 표현으로 쓰이고 또 ‘환경을 겪다’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吃’는 이런 의미가 없다. 반면에 ‘吃’는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고 ‘외식하다’ ‘식당에서 식사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고 또 ‘~의지해서 산다.’ 등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먹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셋째, ‘먹다’와 ‘吃’의 의미는 사전 편찬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더위를 먹다’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연세한국어대사전>에서 다 언급하지 못한다.

앞에서 제기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결합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로 제기한다.

첫째, 지금까지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휘 오류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다만 모어인 중국어의 영향이라는 해석에 그치고 한중 동형어의어나 이형동의어의 비교 분석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석은 오류 원인 규명과는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언어적 측면에서의 비교

고찰은 이러한 어휘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한 어휘 대 어휘의 대역식 해석에 의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어 연구를 통해 이를 교육에 반영시키고 한국어 어휘 교육의 실용성과 효용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어휘 의미 기술은 용례를 통해 나타나는 개별 문장의 의미를 모두 구체적인 의미로 해석해 놓은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사전에서의 의미 해석은 그 문장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흔히 뜻이 비슷한 다른 단어와 대치가 불가능하다. 사전에서의 의미 해석은 많은 경우에 어휘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연어적 의미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바이다. 말뭉치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적당한 용례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사전의 어휘 기술에서 연어 제시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다음과 같다. 우선 구어 말뭉치와 문어 말뭉치를 따로 분석하면 학습자에게 더 의미가 있는데 적당한 말뭉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연어적 용법이 개인의 언어 습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연어 경계의 모호성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을 피할 수가 없었다. 다음, 중국어와의 대조하면서 나타나는 대응 표현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대응 표현의 연어적 용법과 비연어적 용법에 대해 구별하지 않고 중국어의 대응 표현에 국한시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어 연어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의 기초 위에서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연어에 대한 태도 고찰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 강서영(2007).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연어 사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강현화(1998). “체언+용언” 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연구, 8, 191-224.
- 김재봉(2002). ‘떡다’의 의미 연구, 한글학회 4 권.
- 김진해.(1999). 연어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4, 239-280.
- 김진해.(2000). 국어 연어 연구. 박사논문, 경희대학교.
- 김진해.(2005). “왜 연어인가?": 이론과 현실 사이: ‘밥을 떡다’ 와 ‘눈을 뜨다’를 중심으로 .
현대론편집원회.
- 김재봉.(1991). ‘떡다’의 의미연구, 우리어문연구 4-5, 우리언문학회.

- 김태자(1997). '떡다'의 담화분석에서의 의미 관계, 국어교육, 93, 185-208.
- 오옥루이엔.(2006).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미영숙.(2006). 효과적인 연어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문금현.(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연어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 217-250.
- 박숙영.(2005). 한국어 어휘교육을 위한 연어 활용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울.
- 서상규.(2002). 한국어 정보처리와 연어 정보. 국어학.
- 서주연.(2009). 효과적인 어휘학습을 위한 연어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신자영.(2005). 한국어 연어의 다국어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28, 185-203.
- 이동혁(1998). 국어의 연어적 의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이동혁(2003). 연어 표현의 유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 이동혁(2004). 국어 연어관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이종열(2005). '떡다'의 다의적 의미와 구문적 확장. 한구어학 27, 한국어학회.
- 이양혜(2002). '떡다'의 기능과 의미 변화,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 임근석(2006).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양수향.(2004). 연어 오류 분석을 통한 어휘 교육 방안 연어-러시아권 학습자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한송화.강현화. (2004). 연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5(3), 293-314.
- 한영균.(2002). 어휘 기술을 위한 연어 정보의 추출 및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국어학.
- 한영균.(2009). 코퍼스에 기반한 한일 기본어휘의 연어 구성 대조 분석 연구. 국어학.
- 하설월.(2005).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홍재성(1992). 동사'떡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2-4 국립국어연구원.
- 范 晓(1991), <汉语的短语>, 商务印书馆.
- 马庆株(1992), <汉语动词和动词性结构>, 北京语言学院出版社.
- 宋均芬(2002), <汉语词汇学>, 知识出版社.
- 张斌主编 齐沪扬 著(2000), <现代汉语短语>, 华东师范大学出版社.
- 姜先周 (2005). 动词'吃'论元结构扩张的汉韩对比研究,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学报.
- 卢小宁 (2001). 从汉字'吃'看汉语词语的信息特征, 北京邮电大学学报.
- Firth, J. R. (1957), *Papers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inclair, J.(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사전류

- <연세한국어사전>(200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서울: 두산동아.
- <우리말큰사전>(1992), 한글학회. 어문각.
- <표준국어대사전>(2008),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두산동아.
- <新华詞典>(2004), 商务印书馆辞书研究中心.
- <現代漢語詞典>(2005), 2002年 增補本口, 中國社會科學院 語言研究所, 商務印書館.
- <現代漢語规范辭典>(2004), 李行健主編,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语文出版社.
- <現代漢語搭配詞典>(1999), 汉语大词典出版社.